

# 진도는 변신중... 내년 읍내지도 확 바뀐다

### 24억 들여 남문사거리~철마광장 도로·간판 정비

### 상수관로 시설공사, 통신망·전선 지중화 사업 등

### 진도군, 도시개발 10여개 중점사업 집중 추진

진도군 진도읍의 지도가 내년에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진도읍은 진도읍의 동서남북 곳곳의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 10여개가 201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2013년까지 24억원을 들여 남문사거리~철마광장, 옥향식당~큰샘거리 일원에 도로 가로 및 간판정비를 추진한 진도읍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내년 완료된다. 또 진도읍 동의 삼거리~조급 사거

리 일원에 77억원을 투입 ▲상수관로 시설공사 ▲통신망·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점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보행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와 예술의 맛이 넘치는 거리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상가 밀집도로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구간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들여 진도읍 성내리, 남동리, 교동리 일원에 편

입도지 협의 및 보상지정물 철거를 거친 후 1149m의 도로 정비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큰샘거리~광주약국, 철마오거리~클래프~영락교회까지 6억원을 투입해 도로, 간판정비가 실시되는 경관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진도 조급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부지면적 6507㎡ 내에 건축면적 956㎡로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로 신축했다. 시장 1층에는 소매점, 좌판, 어물전

이 2층에는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차량 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완료됐다. 진도는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82.3km의 하수관거가 설치되며, 30.2km 교통지구는 올해 말 준공을, 52.1km의 동의지구는 2014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진 군수는 “경제·사회·문화적 생산 능력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가지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대한민국 대표축제 자리매김 '함평나비축제'

## 초등이여 내년 중학 교과서도 수록

함평나비축제가 2014년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수록된다. 함평군은 지학사에서 편찬해 내년도 새 학기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함평나비축제가 소개된다고 9일 밝혔다. 중학교 사회2 교과서 61페이지에 '지역 축제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든버러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함평나비축제가 등재됐다. 교과서에는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는 대표적인 농촌인 함평이 나비축제를 개최하면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또 함평군은 나비가 사는 밭고따뜻한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여졌다. 함평군은 나비축제가 2010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2011년 유명 출판사 문제집에 이어 2014년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됨으로써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것은 나비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명품 축제 만들기 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15회째 이어지고 있는 함평나비축제는 세계축제협회 주관 피너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한국경영인협회 주최 2013 대한민국 고객충성도 지역 축제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완도 고급파출소, 농기계 야광반사기 부착

## 경운기 등 사고 예방 '앞장'

완도경찰서 고급파출소(소장이문성)가 농민기를 맞아 각 마을을 방문해 경운기 등 농기계에 야광반사기를 부착해 주고 있다. <사진>

고급파출소는 9일 지방도에서 야간 농기계 운행이 늘어나면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야광반사기 부착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는 해안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까지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문성 소장은 “작업들을 마을 별로 배치해 야광반사기를 붙여주는 것



해남 산이면 6년근 인삼 수확 해남군 산이면의 인삼 재배농민들이 지난 8일 6년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 최대의 인삼 재배지인 해남은 지난 2일 산이면과 화산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계속한다. <해남군 제공>

은 물론 사고예방을 알려주고 있다”며 “대부분 고령자들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급파출소는 이외에도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 태우지 않기, 비 오는 날 야간에 밝은 옷 입기 등을 수시로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려 노력을 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전북

### 주민생활 불편 행정구역 '손질'

## 정읍시 마을 3곳 새로 생겨

### 이화동·석교·두산마을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읍시에 4개 마을이 새로 생겼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제 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조례개정 의결을 통해 행정구역 8개소를 조정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오랜 기간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거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로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정을 통해 3개 마을이 신설됐고, 4개소가 경계변경됐으며 1개 마을이 통합됐다. 신설된 마을은 산내면 동성리 이화동마을과 농소동 석교마을, 수성동 두산마을 등이다. 이화동마을은 자연마을에서, 석교마을은 기존마을에서 분리됐으며 최대 인구 과밀지역인 두산마을은 9동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또한 동일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리 경계가 달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과교동 과교마을과 농소동 기산마을, 석교마을, 정우면 신장마을 등 4개소의 경계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고부면 용수마을은 인근 백운마을로 통합됐다. 시는 이번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읍시 행정구역조정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지답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 한옥마을 “한가위야 오너라”

### 8개 문화시설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 준비

한가위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8개 문화시설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전주전통문화관에서는 18~21일 송편 만들기과 국악공연을 하고 추석 당일인 19일에는 가족 대항 윷놀이, 퀴즈대회, 전래놀이 3종 경기 등이 열린다. 막걸리 애호가라면 전통술 박물관을 찾아 모주 거르기를 체험하고 막걸리와 모주를 시음해 볼 수 있다. 한옥생활체험관에서도 인절미 떡메치기와 송편 만들기, 국악기 연주 체험, 비석 치기 대회, 한복 체험, 제기·한지 수첩 만들기 등을 한다. 낭만과 독서의 계절은 최명희 문화관에서 만끽할 수 있다. 엽서를 쓰면 문화관이 대신 전달하는 '전주발(發) 엽서 한 장'을 적거나 1년 뒤에 나에게 돌아보는 편지를 쓰거나 최명희 작가의 작품에 묘사된 한가위의 모습과 풍경 등을 엿볼 수 있다. 풍물체험, 판소리 공연, 마당 창극 박물관 찾아 모주 거르기를 체험하고 소리문화관을 귀를 즐겁게 한다. 이밖에 부채문화관과 완관문화관에서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목판 인쇄·재본 체험 등 생소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이몽룡-성춘향 데이트한 곳

## '광한루원' 더 멋들어진다

### 남원시, 40억 투입 상설 공연장 등 관광명소화 추진

남원시가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나 첫사랑을 나눈 광한루원 주변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꾸민다. 남원시는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한루원 주변에 문화예술의 음악공연을 하게 된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젊은이와 시민에게 알려주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무연고 묘 50기 별초 순창군 구림면직접식자사회(회장 김희선) 회원 20여명은 지난 7일 가족이 없어 방치돼 있는 무연고 묘 50여기에 대한 별초 봉사 활동을 벌였다. <순창군 제공>

## 단신

### 혁신도시 첫 입주 지방행정연수원 12일 개원식

전북혁신도시 내 첫 입주 공공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 12일 현지에서 개원식을 한다. 개원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김완주 도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사는 18만여㎡의 부지에 총 1700여억원을 들여 4만7000여㎡ 규모로 들어섰다. 청사 완공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총 149개 과정에 연간 15만여명의 공무원이 입교할 예정이다. 직원 100여명과 연간 예산 390여억원인 지방행정연수원의 입주로 지방세수는 물론 교육생들의 하숙과 문화, 여가, 사고 활동 등에 따른 2000여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장류산업 1·2·3차 융합특구로 변경

2차 산업위주의 순창장류산업특구가 1·2·3차 산업이 융합된 특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특구 면적이 2004년 최초 지정된 9만7000㎡에서 22만 5000㎡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728억원으로 79억이 늘었다. 아울러 장류원료 저장고, 게스트하우스 건립, 도굴형 절임류 저장고 조성 등 새 사업으로 추가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남원시, 민원사무 신속처리 규정 제정 운영

남원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제, 민원심사관 지정, 복합민원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복합민원팀 설치·운영 등 처리규정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민원실 내에 복합민원팀을 운영하고 복합민원 팀장을 건축지원담당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등 5개 핵심 인·허가 청구를 개설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전북대서 내일 전국 금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전북대에서 전국 금융기관 하반기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전북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 진수당에서 우리은행과 전북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화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 제공과 일대일 상담을 한다. 또 참석자들에게는 한국금융기관 소개 책자를 주고 경품 추첨도 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